

양성 질환으로 시행한 총담관십이지장문합술 15년 후 진단된 문합부 주변 담관세포암 1예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권성우 · 정준표 · 이덕용 · 정연수 · 지상원 · 백용한
이세준 · 송시영 · 이관식 · 정재복 · 이상인 · 강진경

서론: 외과적 담관-장관 문합술은 원위부 담관의 양성 폐쇄성 질환의 치료에 많이 시행되는 수술로서, 일반적으로 역류에 의한 담도염 외에는 큰 문제가 없는 안전한 술식으로 알려져 왔다. 그러나 최근에 들어 외과적 담관-장관 문합술 시행 십 수년 후에 담관암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고, 이는 실험적으로도 그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뒷받침되고 있다. 국내에서는 아직 담관-장관 문합술 후에 발생한 담관암에 대한 보고는 많지 않아 앞으로 많은 관심이 요망된다. 연자들은 15년 전 담관 담석증 및 담낭축농으로 총담관십이지장문합술을 받은 53세 여자에서 주로 총담관십이지장 문합부 주변에서 발생한 담관세포암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 증례: 53세 여자가 내원 하루 전부터의 상복부 동통과 발열을 주소로 내원하였다. 과거력에서 환자는 15년 전 총담관 담석, 간내담석 및 담낭축농으로 본원에서 담낭절제술 및 총담관십이지장문합술을 시행한 것 말고 다른 과거력은 없었다. 환자는 5년 전 담도염으로 입원한 적이 있으며, 약 1달 전에는 1일간의 상복부 동통과 발열을 주소로 입원하여 간농양 진단하에 보존적 요법 후 증상 호전되어 퇴원하였다. 입원 당시 검사실 소견에서 백혈구 $7,570/\text{mm}^3$ (중성구 84.7%), AST 335 IU/L, ALT 354 IU/L, total bilirubin 0.7 mg/dL, alkaline phosphatase 197 U/L, r-GT 153 IU/L이었다. 간염바이러스 표지자는 음성이었고, 종양표지자 검사에서 CEA는 27.6 ng/mL이었다. 복부 CT에서 간내담도 확장과 간우엽의 위축 소견 보였으며, 악성을 시사하는 십이지장벽 비후와 광범위한 림프절 종대 소견을 보였다. 상부위장관내시경에서 총담관십이지장문합부위의 불규칙한 궤양-침윤성 병변이 관찰되었고, 조직 검사에서 선암으로 진단되었다. 자기공명담췌관조영술에서는 총담관십이지장문합부위의 악성 협착 소견이 관찰되었다. 시험개복술을 시행하였으나 절제불능으로서 고식적 위공장문합술을 시행하였다. 이후 전신항암화학요법 등으로 치료하였으나 진단 후 약 1년이 경과한 현재 말기상태로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다. 결론: 연자들은 양성 질환으로 시행한 총담관십이지장문합술 15년 후 진단된 문합부 주변 담관세포암 1예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며, 향후 담관-장관 문합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에 대한 감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.

색인단어: 담관-장관 문합술, 담관세포암